

'한국교회 큰별'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 별세

순복음교회 토대 천막교회 개척 세계최대 교회로 기네스북 등재 인권·아동 복지 증진에도 기여



조 목사가 처음 복음을 접한 것은 고교 2학년 때 폐결핵으로 투병 중에 친구 누나로부터였다. 이후 하나님의 성령의 순복음신학교에 입학해 장모이자 목회 동역자인 최자실 목사를 만났다. 1958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시초인 천막교회를 개

교인은 1988년 일간지 국민일보를 설립해 기독교 목소리를 사회에 전파했다. 1989년에는 비정부가구인 사단법인 '선한사람들'(굿피플)을 세워 인권과 아동 복지 증진에 매진했다.

아울러 조 목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지원 사업도 꾸준히 전개했다. 평양에 추진해 온 '조용기 심장전문병원'은 지난 2007년 착공했으나 2010년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내부공사 등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14일 추모성명을 내고 "위대한 설교자이자 뛰어난 영성가로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셨다"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원로목사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조 목사는 지난 2020년 7월 뇌출혈로 쓰러져 그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전 7시13분 세상과 작별했다. 고인은 1936년 경남 울산 울주군에서 태어났다. 한학과 전통적인 종교문화에 익숙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1950년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했다.

대한민국 산악대상에 故 김홍빈 대장

스포츠클라이밍상 서채현 선수 고상돈특별상 박수호 심판 선정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이 제20회 대한민국 산악상 시상식에서 산악대상을 받는다.

대한산악연맹은 15일 서울 파크히비오 호텔에서 '2021년도 산악인의 날 기념식 및 제20회 대한민국 산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산악인의 날'은 1977년 9월 15일 고(故) 고상돈 대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산악연맹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또 '대한민국 산악상'은 매년 분야별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산악인에게 주는 상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산악대상, 스포츠클라이밍상, 고상돈특별상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산악대상 수상자는 김홍빈 대장으로 결정됐다.

김 대장은 지난 7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3 고봉인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실종된 뒤 구조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한 뒤 실종됐다.

브로드피크 등정으로 김홍빈 대장은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하는 업적을 남겼다.

스포츠클라이밍상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결승(최종 8위)에 진출하며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을 널리 알린 서채현(18·신정고·노스페이스 에슬리트팀)에게 돌아갔다.

고상돈특별상은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를 역임하며 국내 스포츠클라이밍 발전에 기여한 박수호 심판이 차지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정영재 대학원생

캐나다 국가재단 연구장학생 선발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 캐나다 국가재단의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전남대 정영재 석사과정생(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BK21 기후지능형 간척지농업 교육연구팀)은 캐나다 MITAC 재단의 Globalink 연구장학생

으로 선정, 오는 10월부터 약 4개월간 알버타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이오차'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 연구'에 참여한다. 또 이에 필요한 항공료와 체제비를 포함해 2000만 원을 MITAC 재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알버타 대학으로부터 400만 원의 연구 지원금도 함께 받는다.

캐나다 MITAC 재단은 1999년 설립된 국가 장학재단으로, 캐나다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캐나다 현지에서의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캐나다 알버타 대학과 2017년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채희준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간호학과·RCY 동아리, 헌혈 캠페인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동강대 간호학과(학과장 정은서) RCY(Red Cross Youth:청소년적십자) 동아리는 14일 교내 분관과 인문사회관 등 2곳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동강대 제공)

한전 광주본부, 학생 50명 장학금·복지시설 물품 기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상권·맨 오른쪽)는 최근 신정훈(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나주·화순 50명에게 장학금 총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곳에 1000만원 상당 물품을 기증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제공)

계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선물세트 전달



광주 동구 계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병애)가 최근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 250세대에 추석맞이 정(情) 나눔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위문품은 Y-식자재마트(대표 이상재), 패랭이꽃 주얼리(대표 박정순)에서 각각 참치선물 100세트와 혼합잡곡 50세트를 지원해 마련됐다. (계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공)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35 아모르피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55 2021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10 좋은아침
10	00 2021년 제2차 정책 토론회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20 푸르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경찰수업(재)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노래가 좋아(재)	00 12 MBC 뉴스 20 주라기갑스3 35 똑딱구조대 5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나의 살던 고향은(재) 55 UHD 습터	20 영상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푸르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00 KBS 뉴스타임 10 브레드 이발소 2(재)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55 기본 좋은 날(재)	00 뉴스브리핑
3	30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55 5 MBC 뉴스	00 행복설계 알짜배기(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V-우주수호대 15 중앙중앙 돌돌이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50 오매 전라도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랜선 장터 스페셜	00 구해줘! 속수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표리부동	30 라디오스타	40 백종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튜디오 K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명철의 동네 한 바퀴(재)	10 오마이싱어	20 나이트라인 50 닥터 365 55 박미선과 돈우리 돈해피(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기상어 울리와 율리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역사놀이매 아리아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요태	12:10 극한직업	19:05 미스터 마구
07:15 출동! 슈퍼핑크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뽀 뽀로로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건축탐구 - 집
07:45 최고의 호기심딱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딩동댕 유치원	15:25 클래스 e	<대륙의 맛을 찾아서-사람 사는 맛>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꼬마버스 타요	16:00 마사와 곰	<지금 여기, 여유롭게 3부>
09:00 시골	16:15 개구쟁이 조이	그산 속엔 누가 살까요?
09:15 봉구야 말해줘3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덕이	22:45 바닷가 사람들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23:55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5일(음 8월 9일 丙寅) ☎ 010-9790-8237

子 36년생 아무런 장애도 없으니 속도를 내어도 되겠다. 48년생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60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72년생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84년생 자신의 눈썰미는 보지 못 하는 이치를 알아. 96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7, 51

丑 37년생 반복해서 조금씩 지연되는 위상이다. 49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61년생 형세를 뒤집을만한 신촌의 새악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73년생 당대지사가 여의치 않으면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낫겠다. 85년생 복잡해지면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정황이다. 97년생 전처럼 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98

寅 38년생 우연히 발생하는 행운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50년생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다. 62년생 집착을 떨쳐버려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 74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법위에 놓여 있느니라. 86년생 모여서 논해 봐야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98년생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5, 64

卯 39년생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제자리걸음만 하게 된다. 51년생 진행하기 보다는 잠시 정지해 있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63년생 절차대로 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75년생 부족함을 채우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자. 87년생 판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99년생 소를 버렸을 때를 회한다. 행운의 숫자 : 07, 91

辰 40년생 힘들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라. 52년생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얻게 되는 마당이다. 64년생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을 덮으려는 격이다. 76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자. 88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실효적이다. 00년생 시기상조이니 마음을 비우고 대체를 관망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행운의 숫자 : 40, 75

巳 41년생 자기와의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3년생 가변적인 모습이니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65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 들여라. 77년생 자문을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재물운이 나가지고 있으니 수확할 준비를 하라. 01년생 표면만 번이므로 동요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4, 71

午 42년생 빨리 체념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54년생 허심탄화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 66년생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백 번 낫다. 78년생 결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니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90년생 넘겨질다가는 장님이 문고리 잡는 격이 되리라. 02년생 망설이다보면 모든 것을 놓치고 말리라. 행운의 숫자 : 00, 72

未 43년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55년생 긴장하지 않는다면 놓칠 수도 있느니라. 67년생 방법에 따라서 상황이 판이해질 수 있겠다. 79년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알아. 91년생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03년생 향심이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안겨다 준다. 행운의 숫자 : 12, 57

申 32년생 알고 보면 굉장한 난제가 되리라. 44년생 기저에 있던 실력까지 총동원하여 발휘하는 것이 이익이다. 56년생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68년생 현대대로 추진한다면 대체로 순조롭겠다. 80년생 주변인의 위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판도이다. 92년생 방해자가 가벼운 장애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0, 99

酉 33년생 재판사에 응원의 빛이 역력 하도다. 45년생 불합리하니 속히 개선하고 불 일이다. 57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 놓여 있느니라. 69년생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니 계속 밀어 붙여라. 81년생 중추적인 점은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실수를 낳지 않는다. 93년생 강한 확신으로 과단성 있게 추진하자. 행운의 숫자 : 43, 61

戌 34년생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니라. 46년생 자칫 잘못하다가 실하게 된다. 58년생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변수가 차츰차츰 작용할 수 있겠다. 70년생 보이지 않는 뜻이 걸릴 수도 있다. 82년생 평온한 하루 속에 큰 깨달음이 있는 날이다. 94년생 우려해 왔던 일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01, 59

亥 35년생 원칙만 고집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친다. 47년생 서로 뜻이 맞으면 이루지 못 할 일 없다. 59년생 상대적으로 더 인정받게 되는 시점에 놓이게 될 것이다. 71년생 향후의 앞날은 막힘없이 탁 트이여 나르다. 83년생 중추적인 때에 반갑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 95년생 천수신조로써 대접하는 운세이다. 행운의 숫자 : 22, 73